

##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 연구: Multiple Convergence Model의 적용\*

강 철 희

(연세대학교)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이 종 은

(연세대학교)

이 경 은

(서울복지재단)

### [요 약]

본 연구는 다중수렴모델(Multiple Convergence Model)을 적용하여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성 행동 향상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나눔교육 후의 아동 변화에 대해 아동, 학부모, 교사의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변화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눔교육을 받은 고학년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아동, 학부모, 교사의 시각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확인되었다. 또한 양적 결과를 질적 결과를 통해 검증하는 수렴적 방법을 활용해 종합해 본 결과, 나눔교육이 아동에게 매우 긍정적인 의미있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나눔교육의 주요 장(주체)인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나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라는 현상에 대해 포괄적·심층적 이해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다중수렴모델을 적용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연구방법의 지평을 확대하는 효과, 즉 새로운 연구방법론 활용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나눔교육, 아동의 변화, 친사회적 행동, 삼각접근, 다중수렴모형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사업단 및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목적지상주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의 복합적 부작용, 개인과 소집단 중심의 이기주의적 사고의 확산, 가족 공동체 의식의 해체 및 약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구성원으로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동과 청소년이다. 핵가족화로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이들은 이웃이나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큰 다음세대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적 접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아동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 즉 나누는 삶의 의미와 친사회적 가치를 교육받을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0% 이상의 아동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이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사고 및 학습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비영리부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자원봉사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나눔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 구축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만 그치게해서는 안 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나눔이 어린시절부터 체화될 수 있도록 가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최근 사회복지단체와 교사들이 주체가 된 나눔교육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나눌수록 커지는 나'라는 나눔을 실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교사를 선정, 시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05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나눔교육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나눔교육을 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나눔연구회를 조직하여 매년 '나눔캠프'와 '나눔교육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방학을 활용한 자원봉사캠프 등을 개최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교육을 위한 민간 비영리 기구들과 일부 교사들의 노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통해 나눔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정리해 보면서 그 중요성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제한적이거나 실행되고 있다(권선희, 2006; 강철희, 2006).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나눔교육의 의미와 일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 나눔교육이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어떠한 변

화를 가져오는지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나눔교육의 의미에 관해 논리적인 설득은 가능하나, 나눔교육의 당위론적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정기 교육과정 속에서 나눔교육을 아동들에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눔교육이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실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나눔교육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심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는 노력이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라는 현상을 다각적이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삼각접근모형(Triangulation Design)에 입각해서 나눔교육의 효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삼각접근모형 중에서도 Creswell과 Clark(2007)이 제시한 수렴모델(Convergence Model)을 본 연구의 자료특성에 맞게 변형시켜 다중수렴모델(Multiple Convergence Model)을 적용하여 아동의 나눔교육으로 인한 변화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를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찰과 측정을 통해 나눔교육 후의 아동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탐색과 설명을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나눔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의 생성, 나눔문화의 우리사회 정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제고 차원에서 다중수렴모델을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연구방법의 지평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즉 새로운 연구방법론 적용 가능성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 2. 문헌고찰

### 1) 나눔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논의

나눔교육은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선적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면서 이를 내재화시켜 실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강철희, 2006). Bentley와 Nissan(1996)은 사회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개념인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연계하여 나눔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기도 한다. Bjorhovde(2002)는 나눔교육의 목적을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나눔교육은 나눔과 밀접한 친사회적 가치들을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아동 스스로의 인성 발달을 이끌고, 동시에 이들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변화의 기제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눔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발전의 기제로 논의되기도 한다(Jeavons, 1994; Payton, 1995).

Eisenberg과 Mussen(1989)은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등 아동에게 중요한 성인들 (significant others)을 통해 아동이 이타적인 행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하여 아동에게 중요한 나눔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부모, 지역사회에 의한 기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장은 가정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는 아동에게 나눔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눔실천을 위한 하나의 모델적 행위를 보임으로써 나눔의 가치가 내재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Bekker, 2005). 둘째, 나눔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아동기의 주요 사회적 활동의 장인 학교와 교사이다. Lickona(1987)는 교사들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친사회적 덕목과 가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장인 학교는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의 의미, 타인에 대한 공감의 필요성,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외재화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서, 나눔의 사회화가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강철희, 2006).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눔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나눔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나눔참여 활동은 교실 내 교육에서 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Conrad and Hedin, 1989). 더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타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주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및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Daloz, 1998).

어떤 주체에 의한 교육이던 간에 나눔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갖는 그 효과가 다양할 수 있음이 논의되면서 나눔교육 실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나눔교육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Ediger(1998)와 Spaide(1995)는 나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를 갖게 하는 동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Ryan과 Bohlin(1998)은 친사회적 가치에 대해 배운 아동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됨을 제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동개발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협동과 나눔 등의 의미와 가치를 심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보다 높다고 한다(Battistich 외, 1991).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권선희(2006)는 아동에게 나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동의 친사회적 속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정리하면, 나눔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 및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이끄는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ampoy(1998)와 Tyree(1997)는 나눔교육이 반사회적인 가치와 행동을 줄이고 제거하는 효과, 즉 그러한 가치와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사하게, Spaide(1995)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아동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

인들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타인의 욕구를 배려하는 반응적 행동이 상실되면서 자선 행동에 대한 자극을 잃어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나눔교육은 바로 사회적 가치의 약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소개된 선행연구 및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나눔가치 체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변에 존재하는 성인의 역할과 교육적 접근이다. Bentley와 Nissan(1996)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눔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나 종교지도자 또는 지역사회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성인을 통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선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육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Bremner, 1996; Grusec and Kuczynski, 1997; Morsberger, 1997).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및 연구는 아직까지 나눔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연구들은 나눔교육의 일부 효과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즉 나눔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밝히고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나눔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 기반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대한 실제적 검증 뿐 아니라,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나눔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변화를 다양하게 조명해 보면서 나눔교육의 효과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해 볼 필요성이 크다.

## 2)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에 관한 논의

오늘날 사회과학자 및 행동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이질적 패러다임 및 접근방식과 관련해 통합(integrated) 또는 복합(combined)적 연구, 방법론적 삼각접근방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 그리고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 등의 다양한 이름 하에서 제3의 길 방식의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지고 있다(Tashakkori and Teddlie, 2003에서 재인용).

제3의 길 방식의 연구방법론의 발전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Tashakkori와 Teddlie(1998)는 혼합 방법론적 접근은 삼각측정(triangulation)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기초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검증하고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논한다. 이들은 귀납법적 접근과 연역법적 접근에 의한 단절 없이 하나의 연구에서 혼합적 방법을 사용하는 접근방식이 순환적 구조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Erzberger와 Kelle(2002)는 양적방법과

1) 혼합방법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Tashakkori와 Teddlie(2003)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① 혼합방법은 다른 방법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연구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 ② 혼합방법을

질적 방법이 결합되는 것에 대해 ①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과는 수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같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②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과는 다른 목적이나 현상에 관련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보완 및 보충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혹은 상식적 지식의 추론을 위해 이용될 수 있고, ③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즉 수렴되지 않은 형태로 (divergent) 나타나거나 모순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렴되는 결과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각적인 관찰과 측정은 사회현상에 대한 탐색과 설명을 더욱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각적 이해와 논의를 이끌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용성을 갖는 혼합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Tashakkori와 Teddlie(2003)에 따르면, 혼합방법에 대한 문헌에 약 40개의 혼합방법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 Creswell과 Clark(2007)은 혼합방법에 대해서 학자별과 학문별로 분류를 시도하는데, 그들에 의한 분류에서도 12가지의 혼합방법 디자인을 정리해 내고 있다. Creswell과 Clark은 학자들마다의 다른 분류내용들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혼합방법의 대표적 4가지 주요 방식을 제시한다. 연구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요 주제에 대해 양적자료와 질적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접근모형(triangulation design), 하나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관찰하고 측정하면서 다른 자료를 다른 방식의 관찰과 측정을 통해 구성하고 이를 중심자료에 내재시켜(embedded) 하나의 자료를 다른 자료가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 다음으로는 단계적으로 다른 방식의 관찰과 측정을 혼합시키는 혼합모형으로 질적 데이터가 양적 연구결과를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설명적 모형(explanatory design),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식과는 다른 방식의 단계적 혼합모형으로서 질적 방법(일차적 분석)을 먼저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적 방법(이차적 분석)을 개발시키는 탐색적 모형(exploratory design) 등의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혼합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삼각접근모형<sup>2)</sup>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모델로 구성될 수 있다고 Creswell과 Clark은 설명한다. 첫째, 수렴모델(convergence model)의 경우, 연구자들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각각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며, 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비교 또는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수렴을 찾아내는 과정을 갖는다. 이 모델은 하나의 단일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가짐으로서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 받는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는다. 둘째, 변환모델(transformation model)의 경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각각 수집하고 분석

---

사용하는 연구는 더 훌륭한 추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③ 혼합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정리된다.

- 2) Creswell과 Clark(2007)은 삼각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동시에 유의점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양적, 질적 데이터의 상이한 샘플성격, 그리고 샘플 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한다. 특히 두 가지 다른 속성의 자료는 각기 다른 목적에서 수집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어야하며, 때에 따라서는 가중치(weighting)를 부여하면서 우선적인 비중을 두어 선후의 관계를 해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지나치게 상이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삼각접근방법 자체의 적용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더더욱 힘들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같은 개념(concept) 하에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게 사전에 디자인 하는 것이며, 섬세한 디자인을 위한 구성 전략은 자료의 연결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다는 점에서는 수렴모델과 동일할 수 있으나, 질적 형태의 자료를 양적 형태의 자료로 변환시키고 그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렴모델과는 차이를 갖는다. 셋째, 양적 데이터 타당화 모델(validating quantitative data model)은 양적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타당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같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질적인 자료를 갖고 양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타당화시켜 자료의 해석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식의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다층연구(multi-level research) 방식은 연구의 분석단위를 다층으로 구성한 후, 분석단위의 각 층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의 관찰방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 및 해석하는 특징을 갖는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제 3의 길 방식의 혼합연구방법론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삼각접근모형(triangulation design)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분화는 연구목적과 연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법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자료구축의 대상: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나눔교육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 나눔교육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 그리고 나눔교육경험이 있는 교사 및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즉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질적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먼저 양적 접근방식의 연구대상자는 00재단과 00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06 어린이 나눔캠프’에 참가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 60명과 본 연구진이 개발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세 학급의 학생 95명(실험집단)이다. 나눔캠프에 참여한 아동은 00재단에서 인터넷 혹은 직접 방문의 방식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60%(36명), 여학생 40%(24명), 학년별 분포는 4학년 25%(15명), 5학년 55.0%(33명), 6학년 20.0%(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는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43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집단은 00 재단의 ‘2006 나눔교육 교사연수’에 참가한 교사들 중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관심과 의지를 보인 교사 3명의 학급 아동 4학년 95명(실험집단)이다.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은 이들 교사 학교의 동학년의 여러 반들 중 나눔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급에 속한 학생 95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합하여 총 190명이었으나, 이들 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출입한 학생,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 28명을 제외한 총 162명(실험집단, 통제집단 각 81명)이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의한 변화를 보기 위한 분석대상이 되었다.

한편 질적 접근방식의 대상이 된 연구참여자는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과 그 학부모, 나눔교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이들로부터 아동의 변화에 관한 질적인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아동 자신의 변화 보고와 함께 가정 및 학교환경에서 아동의 핵심 관찰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총체적으로 관찰한 것은 이러한 총체적 접근이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진정한 변화를 살펴보는데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00 재단을 통해 학교에서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나눔교육연구회’를 소개받고, 연구회 회장으로부터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의 표집을 활용하였다. 최초의 연구참여자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과정을 통해 총 5명의 교사<sup>3)</sup>를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명, 여성이 2명이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었다. 학부모 집단은 본 연구의 참여자인 교사가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학급 학생의 어머니 중 나눔교육의 취지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4명을 추천받아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스스로의 변화에 관한 질적 자료 역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로부터 학교에서 나눔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6명이 교육을 받은 후에 쓴 나눔교육 후기 및 수기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교사 한 명의 자료는 2년 동안 축적한 나눔교육 후기 및 수기들을 모두 수집한 것이다.

## 2) 자료수집 방법과 과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의 구축과 관련된 디자인은 2006년 초부터 나눔교육관련 문헌연구와 더불어 캠프 준비 등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여 동안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적 자료의 경우, 나눔캠프에 참가한 아동의 나눔교육 전후의 변화 자료수집은 2006년 8월 9일~12일까지 3박 4일의 나눔캠프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sup>4)</sup>되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사전 및 사후에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하여 나눔교육 캠프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6~7명의 아동과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모듈별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역시 모듈별로 사전에 교육을 받은 모듈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아동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교실에서 진행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의 경우, 2006년 10월~12월 기간 동안 재량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1회씩, 총 6회에 걸쳐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을 본 연구진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친숙한 환경인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 3)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나눔교육연구회’의 회원으로, 현재 ①정규 초등학교기관에 재직 중이며, ② 최소 2년 이상 나눔교육을 실시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③현재 나눔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였다.
- 4) 나눔캠프의 경우, 소집단 활동 중심의 분산형 캠프(decentralized camp)를 기본 틀로 구성하였으며, 훈련된 소집단 지도자(cabin leader)들이 참여한 가운데 캠퍼(아동) 중심의 체험학습과 협동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경험을 촉진하는 놀이와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훈련집단(T-group),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인간관계훈련(human relationship training) 등 참만남 집단의 활동들을 기초로 한 구조화된 놀이를 활용하여 아동들이 나눔의 의미를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lt;표 1&gt;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세션	주제	내용		친사회적 행동유형
나눔 캠프	1 나눌 것이 있어요	목표	나눔의 사례를 찾고 자신의 나눔활동에 대해서 다짐한다.	나눠주기
		내용	나눔의 사람들 이야기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많은 것 중 1% 나누기 모둠별 나눔 역할 정하기
	2 나눔의 시작	목표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공감하기
		내용	감자와 친구되기 나만의 특징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보호하기
3 나눔상장 수여식	목표	기부를 실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장을 서로 나눠준다.	공감하기	
	내용	기부실천하기	나눔상장 수여식	나눠주기
나눔 교육	1 나눔의 개념	목표	나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나눔 활동에 대해서 다짐한다.	나눠주기
		내용	나눔의 개념 알기 나눔의 경험 공유하기	나눔의 정의 내리기 나눔의 다짐
	2 전통속의 나눔	목표	나눔의 전통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호하기
		내용	나눔의 전통 알기 나눔과 관계된 속담 알아보기	나눔 전래동화 만들기
	3 나눔의 대상	목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나눠주기
		내용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알기	나눔의 대상에 대해 이해하기
4 나눔의 방법	목표	구체적인 나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방법을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나눠주기	
	내용	자원봉사에 대해 알기 시간 나눔 계획 세우기	기부에 대해 알기 용돈 나눔 계획 세우기	도와주기 친절하기
5 나눔기관 방문	목표	나눔기관에 방문하여 사람들의 나눔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안다.	나눠주기	
	내용	나눔의 전달 과정 알기	나눔 체험 해보기	공감하기
6 나눔교육 마무리	목표	자신이 나눔에 대해 느낀 점을 정리하고, 기부로써 실천한다.	나눠주기	
	내용	나누면 좋은 이유 생각하기 나눔 노트 만들기	그동안 모은 용돈 기부하기	도와주기 공감하기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소그룹 토의 등을 통해 친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방법을 제시하여 모델링과 함께 스스로 실천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sup>5)</sup>하였다.

조사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하여 프로그램으로 인한 아동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아동들이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활용한 척도는 Eisenberg(1982)의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수연(1995)이 번안하여 작성한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와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력하기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나눔캠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0.909이었고 학교에서의 나눔교육 집단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0.898이었다.

5)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향상을 돕는 모델링, 귀납적 설명, 역할놀이를 포함하는 Bjorhovde(2002)가 제시한 나눔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Bjorhovde(2002)가 제시한 나눔교육의 중요 개념들을 토대로 00재단의 '2006 나눔교사연수자료집'에 제시된 나눔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자료의 수집과정을 정리해 보면,<sup>6)</sup> 아동의 변화에 대한 교사로부터의 자료는 2006년 9월부터 10월 중에 수집되었으며,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축하였다. 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고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인터뷰 과정을 전사하였다. 인터뷰 진행 중에 본 연구진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인터뷰에서의 질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아동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 자료는 2006년 10월 30일에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활용하여 약 2시간 정도 포커스 그룹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보다는 아동의 변화에 대한 의도적 관찰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생활에서 인지되어진 아동의 변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포커스 그룹인터뷰 방법을 통해 확장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최초의 접점에 대한 연결(contact point)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교사에게 학부모 인터뷰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 중 교사 1인으로부터 학부모를 추천받아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진은 추천 받은 학부모에게 전화로 연구취지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한 후, 그 학부모로부터 그룹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학부모를 추천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 스스로의 변화와 관련된 질적 자료는 나눔교육 후에 아동들이 직접 작성한 나눔 후기 및 수기를 통해서 구축하였다. 즉, 본 연구의 개별인터뷰에 참여한 교사 2명의 동의와 자료협조를 바탕으로 그 학급 소속 학생들의 수기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자료의 형태는 교사가 직접 자료문서로 정리한 형태와 학급문집으로 발간한 자료집의 형태였으며, 총 A4용지 2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를 연구진이 자세히 여러 번 숙독하면서 나눔교육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7)</sup> 아동의 나눔 후기 및 수기의 내용은 나눔활동 소감, 내가 생각하는 참된 나눔의 의미, 내가 실천한 나눔, 나눔과 관련된 나의 다짐, 나눔활동 평가 및 활동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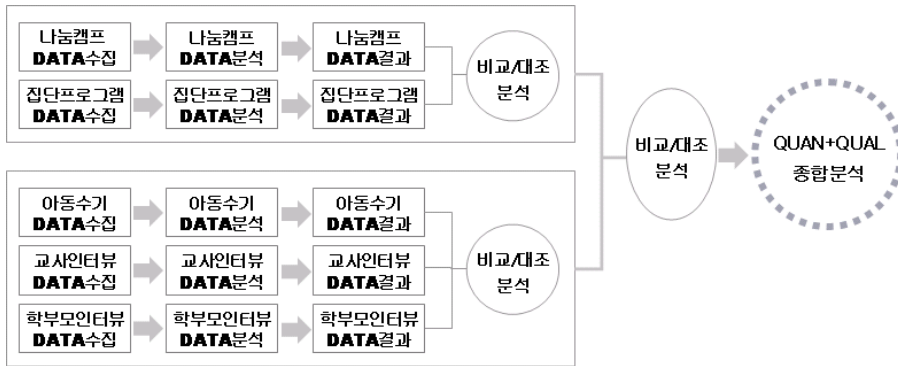
### 3) 분석방법: Multiple Convergence Model의 적용

본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이 제시한 수렴모델을 본 연구의 자료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다중 수렴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연구방법 간(across-method or between-method)에서의 삼각접근

6) 인터뷰 자료수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진은 나눔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키우고자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눔교육연구회 모임 및 회의에 참석하여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 적용 후 논의내용 등을 경청하는 동시에 라포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각종 활동사진, 일기 등을 숙독하였고, 나눔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직접 동참하기도 하였다.

7) 아동 수기자료의 경우, 사전에 본 연구를 위해 별도로 질문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닌, 교사를 통해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을 시도하면서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 각각을 통해 관찰된 내용을 비교와 대조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내리는 방식이다.<sup>8)</sup>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 내에서는 연구 현상과 관련된 각기 다른 대상들에 대한 두 번의 실험적 관찰을 시도하면서 양적 연구방법 내(within-method)에서의 삼각접근을 시도하였고, 질적 연구방법 내에서도 연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설정하여 질적 연구방법 내(within-method)에서의 삼각접근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제시되는 과정을 따라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그림 1] Multiple Convergence Model을 적용한 연구방법의 정리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의 경우, 양적 자료 분석은 나눔캠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의 변화를 T-검증(paired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과 사후 변화를 살펴보는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과 함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는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 자료 분석은 아동의 수기 및 일기 자료분석, 교사들에 대한 개별인터뷰 및 학부모 그룹인터뷰 자료를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개방코딩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때, 각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가능한 충실하게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연구방법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엄격성(rigor) 확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삼각접근법(methodological

8) 이러한 접근 방식을 Tashakkori와 Teddlie(2003)는 동시적 혼합모델(concurrent mixed model)로 구분한다. 그들은 이 모델은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 각각에 의해서 어느 한 주제와 관련된 각기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관찰해 나가면서 각각의 연구방법에 의한 자료들에 대한 각기의 분석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주제에 대해 종합적 해석과 추론(meta-inference)을 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triangulation)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기준(임은옥, 1997)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본다.

첫째, Morse(1991)는 삼각접근방법에서 연구방법론 활용의 적절성과 충분성이 중요함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행하였다. 먼저 나눔캠프 및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한 실험설계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 효과 측정에서는 나눔캠프가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나눔효과 측정에서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세 집단에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경우, 연구참여자 표집시 유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개별인터뷰, 포커스 그룹인터뷰, 아동 수기분석 등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가장 적절한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하면서 적절성과 충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삼각접근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 분석단위로 인해 자료 분석단계에서 복잡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연구분석 단위를 연구의 전 과정 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Knafl and Breitmayer,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행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나눔캠프와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의 분석단위를 일치시켰다.<sup>9)</sup> 한편 질적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긍정적 변화를 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다차원적인 시각(아동, 학부모, 교사)에서 살펴봄으로써 나눔교육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간의 배분 및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자의 적절한 지식과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에 제시되는데(Duffy,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행하였다. 시간 차원에서는 2006년 상반기에 나눔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헌연구들을 준비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수집은 하반기에 집중하는 형태로 시간 배분을 이원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적절한 지식 및 전문성의 확보 차원에서는 이론적 민감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나눔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노력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 각각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한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연구영역에서도 기부·비영리 관련 연구전공자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임상전공자 등으로 구성해 연구진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함과 아울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Morse(1991)는 두 가지 연구방법의 활용에 있어 같은 연구표본이 사용될 필요는 없으나 각 연구방법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연구표본이 선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행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나눔캠프 및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 모두에서 각 43명과 81명의 실험집단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통상적으로 개입이나 처치 후의 효과성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방법에 무리가 없는 규모의 연구표본을 확보하고자

9) 연구의 분석단위로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활용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나눔교육의 주 효과 중 하나로서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변화를 주로 제시하기 때문이고(Battistich 외, 1991; 권선희, 2006), 아직 나눔교육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는 제한성 때문이었다.

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주체에 가장 적합한 이해 및 논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유의적 표집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가장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는 형태로 표집을 늘려 나가는 눈덩이표집방법(snow sampling)을 활용하여 표집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

### 1)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에서는 나눔캠프와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두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나눔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다소 상이한 방식에서 상이한 대상군(아동)에 적용된 동일한 나눔교육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아래의 분석에서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평가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동일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 (1) ‘나눔캠프’에 참여한 아동의 나눔교육 효과 분석

나눔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에 있어 친사회적 행동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2>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 결과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도와주기	사전	43	3.74	.573	3.73 **
	사후	43	4.05	.611	
친절하기	사전	43	4.18	.712	1.17
	사후	43	4.30	.685	
공감하기	사전	43	3.93	.572	2.43 **
	사후	43	4.18	.557	
나눠주기	사전	43	4.05	.536	.78
	사후	43	4.13	.603	
보호하기	사전	43	3.73	.679	2.48 **
	사후	43	4.02	.762	
협동하기	사전	43	3.53	.727	3.11 **
	사후	43	3.96	.711	
친사회적 행동	사전	43	3.86	.479	3.21 **
	사후	43	4.11	.531	

주: \*\* p <.01

우선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의 평균이 3.86점, 사후검사의 평균이 4.11점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0.25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눔캠프에 참여하기 이전보다 참여한 이후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와주기 영역에서는 0.31점 증가하였고, 공감하기, 보호하기, 협동하기 영역에서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했을 때 각각 0.25점, 0.29점, 0.43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절하기와 나눠주기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각각 0.12점, 0.08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리해 보면, 협동하기, 도와주기, 보호하기, 공감하기 순으로 큰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나눔교육 효과 분석

학교에서 교사가 주진행자가 되어 실시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설계의 정교함을 나눔캠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 실험설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나눔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 점수의 동질성을 비교하였고, 다음으로는 각 집단의 사전·사후의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친사회적 행동 전체 점수를 비롯한 모든 하위영역의 점수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전 두 집단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에 있어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프로그램 참여 후에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점수가 동질하다는 전제 하에,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 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의 <표 3>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친사회적 행동 점수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그러한 차이는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친사회적 행동 분석 결과<sup>10)</sup>

(단위: 명, 점)

하위영역	집단(N)	평균(표준편차)		t값 <sup>3)</sup>
		사전 <sup>1)</sup>	사후 <sup>2)</sup>	
도와주기	실험집단(81)	3.69(.72)	4.20(.58)	6.732**
	통제집단(81)	3.61(.61)	3.52(.69)	-1.195
	(t값)	.707	6.699**	
친절하기	실험집단(81)	4.02(.70)	4.36(.58)	4.322**
	통제집단(81)	3.88(.69)	3.85(.67)	- .380
	(t값)	1.241	5.150**	
공감하기	실험집단(81)	3.89(.59)	4.34(.50)	7.291**
	통제집단(81)	3.84(.65)	3.74(.66)	-1.371
	(t값)	.487	6.524**	
나눠주기	실험집단(81)	3.98(.57)	4.36(.58)	5.567**
	통제집단(81)	3.85(.56)	3.73(.67)	-1.604
	(t값)	1.499	6.465**	
보호하기	실험집단(81)	3.81(.70)	4.32(.56)	6.205**
	통제집단(81)	3.68(.64)	3.57(.76)	-1.416
	(t값)	1.216	7.162**	
협동하기	실험집단(81)	3.67(.79)	4.26(.62)	6.506**
	통제집단(81)	3.56(.67)	3.49(.78)	- .777
	(t값)	.970	6.928**	
친사회적행동	실험집단(81)	3.84(.55)	4.31(.47)	8.217**
	통제집단(81)	3.74(.50)	3.65(.58)	-1.721
	(t값)	.225	7.865**	

- 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점수 비교 검증결과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 점수 비교 검증결과
- 3) 실험집단 간,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 검증결과
- : \*\* p < .01

**(3)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 종합적 이해**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동일 척도를 활용하여 두 개의 다소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된 양적연구의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나눔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하위영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에 실시한 나눔교육의 내용이나 진행방식에 있어 다소의 상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교육을 목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나눔이라는 친사회적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 효과적인 매개체임을 확인시켜 준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차원들을 살펴보면, 나눔캠프 집단에서는 친절하기와 나눠주기를 제외한 도와주기, 공감하기, 협력하기, 보호하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 교실 내에서 실시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친절하기와 나눠주기 점수의 증가는 다른 하위차원 점수의 증가에 비해 작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나눔교육의 효과를 친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이해해 볼 때 도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협력하기 영역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10) 나눔교육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자료의 경우, 이경은·강철희(2007)의 논문(『한국비영리연구』 6권 1호)에도 활용되어졌다.

한편 나눔캠프와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일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나눔캠프는 3박 4일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나눔교육 이외의 야외 활동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함께 실시되어, 나눔의 친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데 구조적인 제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달여에 걸친 주 1회의 정기적인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은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눔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나눔의 가치에 대한 전달에 프로그램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관한 ‘질적’ 분석

다음에서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질적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총 114개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이는 28개의 하위범주, 7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될 수 있었다. 한편 학부모 포커스 인터뷰 분석은 <표 6>과 같이 총 30개의 개념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7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개별 인터뷰 분석은 <표 7>과 같이 총 47개의 개념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11개의 하위범주, 5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될 수 있었다.

### (1) 아동이 인지한 나눔교육에 의한 변화 분석

아동이 인지한 나눔교육에 의한 질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수기에 나타난 나눔교육 이전의 나눔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나눔교육을 하기 이전에는 나눔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앞섬’, ‘나눔이 낯설음’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아동의 나눔에 대한 생각(나눔교육 이전)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너무 떨렸음, 무서웠음	두려웠음	부정적 감정이 앞섬
이해하려 하지 않음, 재미없을 거라 생각함	거부함	
억지로 함, 주기 싫었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함, 조금 아까운 때도 있음	하기 싫었음	
아무생각 없이 그냥 함, 관심이 없었음, 생각해본 적 없음	관심 없었음	나눔이 낯설음
어떻게 하는지 몰랐음, 잘 몰랐음, 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모름, 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잘 몰랐음	

나눔교육을 받기 전, 아동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것으로, 혹은 다가가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었다. 아픈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떨리고 두렵기도 하였으며, 하는 일 자체도 재미없을 거라 생각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한다는 것이 싫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등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앞섰음을 보



여준다. 한편으로는 나눔활동이 전혀 관심이 가지 않을 뿐더러, 하는 방법을 몰라 그동안 못했던 것 같다는 진술도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나눔을 하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정말 안 좋은 것이라더라고 생각했다(옥##, 4학년)

그러나 나눔교육을 받은 이후에 아동들은 스스로 ‘나눔을 행함(내 힘, 내 마음, 내 물건, 내가 먼저 나눔)’,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음’, ‘자신과 주변을 다시 보게 됨’, ‘나눔과 함께 하고픔’,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됨’ 등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나눔교육을 받으며, 또는 받은 후, 아동들은 생활에서 나눔을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형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형태, 나의 것을 실제로 주는 형태 등으로 나뉘는데, 행동의 경우, 아픈 친구를 도와주거나 어른들의 짐을 들어드리기, 자리양보하기 등 약자를 돕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친구의 숙제를 도와주고, 물건/준비물 등을 빌려주기, 우산을 씌워주는 등 도움이 필요한 주변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내용도 비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동상의 변화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먼저 고된 일을 술선수범의 자세로 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교육 후의 나눔은 행동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친구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부터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려하고, 남을 배려하려는 모습, 먼저 사과하고, 싸우지 않으려 노력함으로써 주변인을 소중히 하려는 노력 또한 아동들이 생각하는 나눔활동의 영역이었다. 또한 마음으로 깊이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는 따뜻한 마음 씩씩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물건을 선뜻 내놓기도 하였으며, 용돈을 기부하는 등 자기가 소유한 일부를 남에게 주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을 가다가 장사를 길바닥에서 고생하며 파는 사람들이나, 동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사 잘되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부자되길 기원합니다’ 하며 속으로 기도해준다(김##, 4학년)

할아버지께서 잘 일어서지 못하셔서 내가 일으켜드려 주었다. 지하철에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들께 자리를 비켜드렸다(나##, 4학년)

나눔실천을 통해 아동들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고, 마음이 커진 것 같으며,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고, 즐겁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이 솟으며, 행복해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며 아동들은 그동안 나누며 살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모습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아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데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기도 하는 등, 주변상황과 주변인 그리고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표 5> 이등이 인지한 스스로의 변화(나눔교육 이후)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부족해줌, 자리를 비켜줌, 아픈 친구를 도와줌, 짐을 들어줌, 안마를 해줌, 지하철 불우한 이웃에게 돈을 줌	약자를 도움	(내 힘을 나눔)
길을 알려줌, 었지른 물을 같이 닦아 줌, 우산을 씌워줌, 숙제를 도와줌, 물건(연필, 지우개, 준비물 등)을 빌려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함	
욕하지 않음, 폭력 쓰지 않음, 싸움하지 않음,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음, 사과를 먼저 함, 되도록 친구들의 성격을 맞추어줌, 차별하지 않음, 친구에게 배려함, 노래를 불러드림	주변인(친구, 형제)들을 소중히 함	
마음속으로 기도해줌	마음으로 도움	(내 마음을 나눔)
생일선물로 받은 것을 줌,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줌	내게 소중한 것을 줌	(내 물건을 나눔)
나눔저금통에 기부함, ARS를 통해 기부함, 용돈을 기부함	돈을 기부함	
쓰레기를 주움, 청소당번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줌, 반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가져옴	술선수범함	(내가 먼저 나눔)
자랑스러움, 마음이 커진 것 같음, 가슴이 쿵닥거림, 오늘처럼 잘한 적은 처음임, 이젠 아깝지 않음, 자신감이 생김	뿌듯함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음
재미있음, 즐거움, 상쾌함, 통쾌함, 힘이 솟음, 기쁨, 행복해짐	즐거움	
그동안 너무 한심했음, 다른 사람에 비해 실천하지 않음, 내가 작아 보임, 부끄러움, 후회함, 아쉬움, 내가 버린 쓰레기가 생각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음	예전의 모습을 반성하게 됨	자신과 주변을 다시 보게 됨
쓰레기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없어짐, 부모님께 감사함,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 할머니 생각이 남, 나눔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자랑스러워짐	주변을 다시 보게 됨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람, 나눔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움, (기부자들)을 본받고 싶음	모범적인 나눔모습을 보고 감동함	나눔과 함께하고픈
커서 불쌍한 사람 돕고 싶음, (봉사활동 한 기관에)다시 가고 싶음, 계속 나눔을 배우고 싶음, 나눔동아리를 할 것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 바램, 빨리 커서 많이 저금하고픈	나눔을 지속하고픈	
아무 보답 없이 하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무조건적인 것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됨
습관적인 것, 쉬운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 진짜 실천하는 것	진심을 담고 있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다친 친구 일으켜주는 것, 외로운 친구와 친구해주는 것	약자를 도와주는 것	
감싸주는 것, 서로 기분 나쁜 말하지 않는 것,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 아무리 못생겨도 가난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섬기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사랑하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타인을 소중히 하는 것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발성이 따라야하는 것	
배우는 것,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것,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기부하는 것,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양보하는 것, 배려해주는 것, 나의 마음을 1%라도 기부하는 것, 아끼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	
무엇을 잘못해도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	노력하는 것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공유하는 것, 다 같이 하면 좋은 것, 더불어 생활하는 것, 뭉쳐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것	
나눔활동도 경험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줌, 일석이조, 나에게 필요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것	서로 윈-윈 하는 것	

이러한 변화와 함께, 모범적인 나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신 또한 앞으로 나눔을 지속하고, 활발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오늘 처음 #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해주셔서 자신감이 좀 생겼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깐 할머니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깐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잘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서로 과자를 나누어 먹고, 싸우지도 않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중략)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는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했던거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조#, 4학년)

아동들이 나눔교육을 받은 후 나눔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교육의 객체가 그 내용을 어떤 의미로 내재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통해 직접 나눔을 체험해본 아동들이 진술한 ‘참된 나눔’의 정의에는 ‘무조건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진심을 담고 있는 것’, ‘약자를 도와주는 것’, ‘타인을 소중히 하는 것’, ‘자발성이 따라야하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 ‘노력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서로 윈-윈 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아동들은 나눔의 기본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즉, 아무 보답 없이 하는 것, 그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습관적으로,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 쉬운 것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과 정성을 토대로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약자를 도와주고, 타인을 소중히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아동들이 강조하였던 내용 중의 하나였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친구, 왕따를 당하는 친구와 동무가 되어주는 등의 표현에서 인지되었듯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대상, 자신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대상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것이 참된 나눔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욕하지 않으며, 섬기고,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아껴주는 등 매 순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나눔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이라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실천과 노력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내가 먼저 실천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 나아가 나누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눔을 참아 내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서로 함께 공유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위한 환경 조성과 연결시켜 나눔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제가 생각하는 참나눔은 남을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담 중에서 콩한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배가 불러 주는 것은 진정한 참나눔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 나눔입니다.(나#, 4학년)

(2) 학부모가 인지한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변화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변화는 ‘생활이 안정되어감’, ‘나눔이 생활화 됨’, ‘타인과 관계하는 방법을 터득함’, ‘성숙해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6>은 학부모들이 인지한 아동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학부모가 인지한 아동변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스스로에 대해 여유가 생김, 마음이 따뜻해짐, 기다려줄 줄 알게 됨	생활의 여유가 생김	생활이 안정되어감
뒤로 물러남, 싸우지 않음, 참음, 사과할 줄 알게 됨, 반항스런 모습이 없어짐, 교실이 안정되어보임(학급방문 시)	공격적 태도가 줄어듦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도와줌, 옷을 벗어줌, 시키지 않아도 함, 저금통에 동전 털어놓고 뿌듯해함, 혼자 뒷정리를 함	나눔에 익숙해짐	나눔이 생활화 됨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줌, 귀담아들음, 식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눔,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줌	의사소통 기술이 좋아짐	타인과 관계하는 방법을 터득함
남을 배려함, 친구를 걱정함, 이기적인 모습이 적어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됨	타인의 입장이 되어봄	
여러가지 생각을 해봄, 성숙해짐, 마음이 많이 커짐, 지난날 성숙치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울기도 함	생각이 깊어짐	성숙해짐
자신감이 생김, 당당해짐, 스스로 잘못됨을 구별함	정체성을 찾아가게 됨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나눔교육 이후부터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공격적 태도도 줄어드는 등 생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급하고 참지 못했던 일도 이제는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도 알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해 여유도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양보를 몰랐던 아이가 선뜻 뒤로 물러나는 모습, 친구나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이 눈에 띄게 줄은 점, 좀 더 참으려하며,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모습, 학급을 방문했을 때 교실이 뭔가 모르게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진술한다.

변화는 나눔을 행하는 모습에서도 발견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자발적으로 도와드린다면, 추워하는 친구에게 옷을 벗어주고, 시키지 않은 청소도 일부러 남아서까지 하는 등 나눔 자체가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이 자주 목격됨을 진술한다. 이 이외에도 타인과 관계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고, 예전보다 식구들과 대화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의사소통 기술이 좋아진 점 등이 관찰되기도 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바꿔 생각해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 등이 관찰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한층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즉 자신 밖에 몰랐던 아동이 지난 날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은 마음을 읽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고, 당당해지며, 스스로 잘못됨을 구별하기도 하는 등의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함을 진술한다.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작은 일도 대립하고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지금은 안 그래요. 뒤로 물러난다고 해야 하나? 개 얘기 다 듣고 개가 맞나?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 나중에 와서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의사를 물어보고.(학부모 3)

저희 옆집에 다리 한쪽이 불편한 할머니가 살거든요. 처음에는 안다가 갔어요. 무서워 엄마 하면서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할머니가 오면 쫓아가. 그 할머니 오시는 거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가 쫓아가서 문도 열어주고 어떨 때는 문도 따드려요. 그런 게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길가다가 애들이 공중 전화할 때 콜렉트콜하는거 못하는거 도와주고 집에 와서 엄마 조그만 애가 그거 못하고 있는거 내가 도와주고 왔어 라고 참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변화는 확실히 있는거 같아요.(학부모 1)

**(3) 교사가 인지한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변화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인지하는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변화는 ‘생활습관이 바람직해짐’, ‘나눔에 익숙해짐’,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짐’, ‘나눔의 대상을 소중히 하게 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7>은 교사들이 인지한 아동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교사들은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다른 또래에 비해 여유가 더 생기고 인색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진술한다. 친구들과 간의 경계도 낮아지며, 타인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듯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예전에 비해 덜 싸우고 교우 간 돈독한 모습을 보이는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실생활에서는 나눔의 개념이 절약과도 이어져 함부로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등 근검절약을 실천하려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고 진술하였다.

<표 7> 교사가 인지한 아동변화<sup>11)</sup>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인색하지 않음, 다른 또래에 비해 여유가 있음,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생김, 경계가 낮아짐, 초조해하지 않음	생활의 여유가 생김	생활습관이 바람직해짐
싸움이 줄어들, 욕 안함, 잘 몽침, 쉽게 흥분하지 않음, 짜증을 덜 냄, 순해짐, 스스로 참음	부정적 표현을 자제함	
절약함, 함부로 버리지 않음, 잃어버리지 않음	절약하게 됨	나눔에 익숙해짐
서로 나눠먹음, 당위적으로 받아들임, 그냥 놓고 감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짐	
친구에게 줄 간식을 싸움, 도와주려 가자고 조름, 자기 돈을 보탬, 저요저요!(서로 손뼉), 적극적으로 내놓음, 기부액수가 많아짐, 흔쾌히 빌려줌, 먼저 달려가 도움	자발적/적극적으로 도우고자 함	
지하철 저급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함, 길거리에 있는 할머니를 도움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김	
수용력이 생김, 이해심이 커짐, 양보함, 남을 칭찬함, 배려함	타인을 이해하게 됨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짐
가족을 위한 나눔에 소홀했음을 반성함, 가족들을 도움, 친구를 위해 노력함	가족/친구에 대한 나눔을 생각해보게 됨	
자신감이 생김, 나눔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김, 보람을 느낌, 자신에게 의미부여함, 새로운 자신을 발견함	나도 할 수 있음	나도 할 수 있음
애정이 생김, 보고 싶어하게 됨, 사랑하게 됨	봉사대상을 소중히 함	나눔의 대상을 소중히 하게 됨
가족 같아짐, 연대감이 형성됨, 친구들과 돈독함	서로 더욱 친밀해짐	

11) 교사가 인지한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변화분석 자료의 경우, 이종은·김미옥(2007)의 논문(『한국비영리연구』 6권 1호) 일부에도 활용되어졌다.

또한 ‘나의 것’을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자기 돈을 보태서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사기도 하고, 행동의 적극성 측면에서도 흔쾌히, 먼저 도움을 주고 빌려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우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된다고 진술한다. 이는 비단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즉 도움 및 나눔에 깨어있는 모습이 아이들의 일기 등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하철에 배치되어 있는 저금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기부를 하고 돌아온 이야기, 길거리에서 만난 약자를 위해 보모님보다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도와드린 이야기 등을 접하며 타인에 대한 나눔 필요성과 관심의 깊이가 확대되고 심화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것 또한 나눔교육 후 관찰되는 주요 변화 중의 하나이고, 특히 주변인과의 나눔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사고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다. 가족을 위한 나눔이 모자랐다는 스스로의 반성, 친구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려는 모습 등이 보다 많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눔교육은 결국, 아이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타인(돕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가시켜주며, 나눔의 대상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하고, 중국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이끄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진술한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중략) 조금하게 막 싸운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뭘 빌려주는데 인색한다거나. 이런건 별로 없어요. 약간은 그네들 삶에 비해서 또래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요.(중략) 멀리 보면은 그런 애들도 바뀔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고 성장을 하는 애들하고는 다를꺼라고 보거든요(교사 1)

시설 같은데 가서 아이들이 처음에 아주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자꾸 하다보면 무섭고 어려운데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그건 큰 변화거든요. 그건 할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거예요. (중략)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하면서 이 할머니도 똑같은 할머니고 우리의 노래나 연주나 안마를 기뻐하신다는거. 작은 선물에도 좋아하신다는거. 그런걸 깨달으면서 좋아하게 되죠. (중략) 계속 가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할머니들이 더욱 보고 싶어서 나눔반에 오거든요. 지원하거든요(교사 3)

#### (4)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관한 질적 분석: 종합적 이해

나눔교육에 의한 아동의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동-부모-교사의 자료에서 분석된 아동의 변화는 3가지 주체에서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와 부모의 인터뷰 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눔교육 후 변화가 나타나는 범주가 많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크게는 생활모습에 있어서의 변화, 주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나눔실천에서의 실제적 변화, 인성/인격적 성숙도에서의 변화 등으로 범주화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동이 나눔교육을 받은 후, 일상생활 속에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게 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의사소통기술이 좋아지며, 가족과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타인을 이해하는 힘

이 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생각이 깊어짐과 동시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등 자아에 대한 인지정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동의 수기자료를 통해서도 뚜렷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약자들을 돌보고, 주변인을 위해 마음을 쓰며, 주변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진술,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고백,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었다는 나눔행동 보고에서 아동의 이 같은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 3)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결과의 수렴

본 연구는 삼각접근모형 중에서도 다중수렴모델을 적용하여 나눔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아동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렴모델은 양적 결과를 질적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확증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는데(Creswell, 1999), 특히 하나의 단일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가짐으로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수렴 현상을 정리해 보면서 나눔교육 이후의 변화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위에서 제시한 수렴모델의 특성을 기반으로, 과연 나눔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질적 결과를 양적 결과에 수렴시키고자 한다. 두 번째로 양적 결과로 수렴되지 않는 질적 결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통해 나타나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양적 분석결과에서 나눔교육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공통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하위영역은 도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협동하기 등의 영역이었다.<sup>12)</sup> 이러한 양적 결과가 질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 대해 질적 분석한 결과, 특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범주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수렴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 번째 ‘도와주기’ 영역과 관련해서, 이는 아동으로부터 확인된 바인 ‘약자를 도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함’, 학부모로부터 확인된 바인 ‘나눔에 익숙해 짐’, 교사로부터 확인된 바인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짐’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수렴을 통해 나눔교육이 아동에

12) ‘도와주기’는 모르는 사람,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도움 (5문항), ‘친절하기’는 문 열어주기, 길 안내, 자리양보 등(4문항), ‘공감하기’는 타인에 대한 이해, 진심어린 축하·위로, 소외된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한 노력(6문항), ‘나눠주기’는 타인을 위한 돈 나눔, 음식 나눔, 물건 나눔 등(4문항), ‘보호하기’는 정직한 구매, 진심어린 충고, 대가 없이 타인 돌봄 등(5문항), ‘협력하기’는 힘든 일 협동, 술선수법, 자신보다 단체와 타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양적 자료인 친사회적 행동 결과에 질적 결과를 수렴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각 문항들과 질적 결과들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등을 각각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상위범주가 갖는 포괄성 때문에, 수렴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하위범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있어 '도와주기'라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감하기' 영역은 아동,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스스로는 나눔교육을 통해 '마음으로 도움'의 경향성이 발생되었다고 인식하고, 학부모는 아동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봄', 교사는 나눔교육 후 아동이 '타인을 이해하게 됨'의 현상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하기'라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과 관련해서 나눔교육이 아동에 있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보호하기' 영역과 관련해서, 이는 아동 스스로가 인식한 '주변인들을 소중히 함', 학부모로부터 확인된 바인 '생활의 여유가 생김', 교사로부터 확인된 바인 '생활의 여유가 생김', '악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김'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보호하기'와 관련해서 공통된 이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함을 통해, 나눔교육이 친사회적 행동 중 '보호하기'라는 하위영역에서 아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을 인식할 수 있다.

네 번째, '협동하기' 영역과 관련해서, 이는 아동 스스로가 인식한 '술선수범함', 교사로부터 확인된 바인 '자발적/적극적으로 도와고자 함'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나눔교육은 친사회적 행동 중 '협동하기'라는 하위 영역에서 아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서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나눠주기' 영역은 '도와주기' 영역과 상당히 공유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즉 '나눠주기'의 내용과 '도와주기'의 내용이 크게 구별되지 않고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수렴의 현상을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나눔교육 집단프로그램에서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친절하기' 영역 역시 '보호하기'의 내용과 크게 구별되지 않고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친절하기'와 관련해서, '공격적 태도가 줄어들' '부정적 표현을 자제함' 등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소극적 변화가 나눔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기'라는 하위영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의 결과에서는 다뤄지지 않으나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는 발견되어지는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 중 주목할만한 현상은 바로 나눔교육이 아동의 인성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들 스스로는 나눔교육을 통해 '뿌듯함' 및 '즐거움'의 발생과 함께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음'이라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나눔교육 후 아동들이 '생각이 깊어짐' 및 '정체성을 찾아가게 됨'의 발생과 함께 '성숙해짐'의 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나눔교육 후 아동들이 '나도 할 수 있음'이라는 변화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눔을 통한 아동의 인성적 변화와 관련해서 위에서 제시된 결과 이외에도, 나눔교육은 '예전의 모습을 반성하게 됨'과 '주변을 다시 보게 됨'의 효과(아동)도 갖고 있음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나눔교육을 통해 아동은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고(아동), 나눔에 익숙해지게 되며(교사), 나눔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결과(학부모)로 발전될 수 있음이 인식된다. 즉 나눔교육은 어린시절부터 나눔이 체화되게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나눔 의식 형성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러서 이러한 결과는 나눔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양적 접근만을 통해서는 쉽게 파악되기 어려운 변화 양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삼각관찰과 같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 5. 논의 및 제언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나눔 교육 확산을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왕따, 중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 점차 저연령화되는 문제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성을 위한 대안적 교육적 접근이 매우 절실함을 인식케 한다. 인성(人性)은 가정과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아동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친구에게서 배우고 선생에게서 배운다. 가정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인간이 길러지는 것이다(2007. 4. 23 조선일보, '사람만드는 교육이 없다'). 그러나 경쟁과 학습에 내몰린 아동에게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인성교육을 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인성교육의 중요성만이 당위론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눔교육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해 바로 'how'와 'what' 차원에서의 답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눔교육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였다. 즉, 나눔교육을 통해 아동은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나눔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나눔교육은 단순히 시민단체 차원의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학교 교육 안에서 제도화시키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나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아동의 연령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보다 흥미 있게 구성하여 아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 자원봉사시스템과 나눔교육을 연계시킨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나눔교육을 위한 삼각 주체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나눔을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학교의 교사는 나눔의 가치 체화와 같은 아동의 도덕적 사회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아름다운재단, 2004). 따라서 아동에게 진정한 나눔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 대한 나눔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가 나눔교육의 적극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나눔교육은 아동의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 더욱 더 발현될 수 있고, 이것이 사회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시도하는 노력 차원에서 학교에서 자녀가 받고 있는 나눔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오픈(학습홈페이지 운영, 공개수업, 나눔통신문 발송 등)시키는 방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나눔학부모회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등이 연계되어 나눔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를 더욱 풍성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나눔교육을 정규교육과정 안에 배치하여 제도화시킴으로써 가능한 어린시절부터 이러한 나눔의 문화에 아동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동들이 나눔의 가치 내재화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의 자산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나눔교육이 이러한 건강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적 기제가 됨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최초의 결합적 시도(combined approach)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기는 하나 다소의 제한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본 연구의 양적 접근의 결과와 질적 접근의 결과를 수렴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처럼, 나눔교육은 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성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의 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개념적 틀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서 하나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보기 어려운 측면을 다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삼각접근법(Triangulation Design) 중에서도 다중수렴모형(Multiple Convergence Model)을 적용해 보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혼합방법론이 나눔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연구 전반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어 지식의 심화 및 확대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철희, 2006, “나눔의 사회화 전략-나눔문화 구축을 위한 대안 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8주년 기념 나눔문화교육 확산을 위한 세미나 자료, pp 5-31.
- 권선희, 2006, “나눔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1995,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 과정변인, 사회적 유능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경은·강철희, 2007,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6권 1호, pp. 77-109.
- 이종은·김미옥, 2007,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권 1호, pp. 111-164.
- 임은옥, 1997, “연구방법론적(Methodological) Triangulation”,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Triangulation 방법의 간호연구 적용』, 1997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 조선일보, 2007년 4월 23일자 기사
- Battistich, V., Watson, M., Solomon, D., Schaps, E., and Solomon, J., 1991, “The Child Development

- Project: A Comprehensiv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Character” in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ume 3: Application*, W. M. Kurtines and J. L. Gewirtz (Ed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kker, R., 2005, “Charity Begins at Home: How Socialization Experiences Influence Giving and Volunteering”, ARNOVA Annual Conference Washington DC.
- Bentley, R. J. and Nissan, L. G., 1996, *The Roots of Giving and Serving: A Literature Review Studying How School-Age Children Learn the Philanthropic Tradition*,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 Bjorhovde, P. O., 2002,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Why, How, and What.”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No. 36. CA: Jossey-Bass Publisher.
- Bjorhovde, P. O., 2002,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of Philanthropy Curricula*, MI: St. Mary’s University of Minnesota.
- Bremner, R. H., 1996, *Giving: Charity and Philanthropy in History*, NJ: Transaction Publishers.
- Campoy, R. W., 1998, “Creating Moral Curriculum: How to Teach Values Using Children’s Literatur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Reading Improvement*, 34(2). pp. 54-65.
- Conrad, D. and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WI: National Center on Effective Secondary Schools,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reswell, W. J., 1999, Mixed-method research: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In G. J. Cizek(Ed.), *Handbook of Educational Policy*(pp. 455-47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reswell, W. J. and Clark, V. P., 2007, *Mixed Methods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Daloz, L. P., 1998, “Can Generosity Be Taught?”, *Essay on Philanthropy*, 29.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 Duffy, M. E., 1987,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A vehicle for merg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3), 130-133.
- Ediger, M., 1998, *Caring and the Elementary Curriculum*, Unpublished manuscript.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Eisenberg, N., and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zberger, C. and Kelle, U., 2002, Making Inferences in Mixed Methods: The Rules of Integration. In: A. Tashakkori;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London/Thousand Oaks/New Dehli
- Grusec, J., and Kuczynski, L., 1997,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New York: Wiley.
- Jeavons, T. H., 1994, “Cultivating a Critical Compassion: Nurturing the roots of philanthropy”, *Essays on Philanthropy*, 11.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p. 2.
- Knaf, K. A., and Breitmayer, B. J., 1991, “Triangul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ssues of conceptual clarity and purpose”. In J. M. Morse(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Newbury Park: Sage.
- Lickona, T., 1987, “Charact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n K. Ryan and G. F. Mclean(Eds.),

-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NY: Praeger Publishers.
- Morse, J. M., 1991, "Approaches to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Nursing Research*, 40(1), 120-123.
- Morsberger, M. J., 1997, *Benevolence and Children: A Study of Grade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Philanthropy and Opportunities to Encourage Charitable Giving and Altruistic Behavior for a Better World*, MN: St Mary's University of Minnesota.
- Payton, R., 1995, "Major Challenges to Philanthropy", *Working Papers Series*, Working Papers Series, 95-19,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 Ryan, K. A., and Bohlin, K. E., 1998, *Building Character in Schools: Practical Ways to Bring Moral Instruction to Life*, CA: Jossey-Bass.
- Spaide, D., 1995, *Teaching Your Kids to Care: How to discover and develop the spirit of charity in your children*, NY: Carol Publishing Group.
- Tashakkori A. and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London: Sage.
- Tashakkori A. and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Tyree, C., 1997, "Teaching Values to Promote a More Caring World: A Moral Dilemma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for a Just and Caring Education*, 3(2). pp. 215-266.

# Effects of Philanthropy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Analysis Using a Multiple Convergence Model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e, Jong-Eun

(Yonsei University)

Lee, Kyoung-Eun

(Seoul Welfare Found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philanthrop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a mixed method. To examine the effects of philanthropy education, two different approaches in research methods are conducted with different data collected from different target groups on the same phenomenon: a) experimental designs to analyze students' change(prosocial behaviors) by philanthropy education program performed in a summer camp(43 participants) and elementary schools(162 students); and b) qualitative analysis on students' changes in perceptual, attitudinal, and behavioral aspects by students' diary and memorandum(66 participants) and intensive interviews with teachers(5 teachers) and parents(4 mothers).

The analysi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shows that philanthropy education has effects on students' changes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prosocial behavior. First,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show that in every component of the prosocial behavior such as helping, being kind, empathizing, sharing, protecting, and cooperating, students have positive changes after philanthropy education. Such chang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well. Second,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show that students after having philanthropy education display positive changes in diverse aspects. Particularly, the quantitative results are converged with the qualitative results from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the other hand, unique finding from qualitative analysis

is that students after having philanthropy education can have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personality. Such a change is commonly confirmed b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compare results or to validate, confirm, or corroborate quantitative results with qualitative findings on the effects of philanthropy education for students.

Key Words: Students' Change after Philanthropy Education, Prosocial Behavior, Triangulation Design, Multiple Convergence Model

[논문접수일 : 07. 04. 03 게재확정일 : 07. 05. 17]